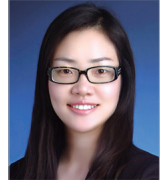


##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 경락학설經絡學說(1)



**강 무 속**  
 동물제종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한의학 및 전통수의학에서 생리병리를 해석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중의 하나인 기혈진액은 신진대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물질로 보고 있다. 이 기혈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건강상태라고 지칭하는 것은 기혈이 끊임없이 순환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혈이 순환하는 경로를 경락經絡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락을 "기혈이 순환하고, 장부와 주위 조직과 기관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말하는 것이다.

경락학설經絡學說은 경락의 생리기능, 병리변화 및 장부와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설로, 전통수의학 이론체계의 한 부분이다. 경락학설은 고대사회의 장기적인 의료행위 중에 침구, 추나 등 분야의 누적된 경험과 당시의 해부학적 지식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본다.

경락학설은 침구, 추나 등의 이론적인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전통수의학의 여러 임상분야에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상학설, 기혈진액이론, 병인 학설과 같은 기초이론도 경락학설과 결합되어야만 비교적 완벽하게 생체의 생리기능과 병리변화를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수의학에서 경락학설의 가치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 1. 경락의 개념

경락經絡이란 '기혈氣血이 운행하는 길'으로써, 경맥經脈과 낙맥絡脈, 십이경근十二經筋, 십이피부十二皮膚로 나눌 수 있다. 한 국가가 교통망과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와 물류를 교류하는 것과 같이, 그물처럼 상하좌우로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의 경락 시스템에 의해서 장기와 조직기관은 아주 밀접한 연

결 상태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경락은 경맥經脈과 낙맥絡脈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으로, 경맥은 위아래 종적인 경로를 가진 비교적 굵고 주된 간선이고, 대부분 심부에 위치하며, 낙맥은 가지처럼 갈라진 분지를 말하는데 횡으로 분포하면서 상대적으로 얇은 부위에 위치한다.

종횡으로 연결되는 경맥과 낙맥은 전신에 그물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안으로는 장부와 기관으로부터 걸으려는 피부, 근육, 뼈와 같은 조직까지 서로 연결되게 된다.

표1. 경맥과 낙맥의 구분

	형태				작용
	특징	방향	위치	경혈	
경맥	주간(主幹)	세로	심층	많다	정보전달과 기혈氣血 순환에 중심적 역할.
낙맥	분지(分枝)	가로	얕은 층	하나	표리관계에 있는 경맥을 연결.

경혈經穴은 신체의 표면에 있는 침·뜸·부항 치료의 자극점으로써, 경락經絡상에 있어서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자리를 말한다. 기혈氣血의 통로인 경락을 따라 체표면에 위치하는데, 기가 모이고 출입 하는 곳이라 하여 '혈'穴(구멍)이라 한다. 경혈은 어떤 장기나 기능 체계의 이상이 체표에 나타나는 반응 포인트이면서 진단 포인트 및 치료 포인트가 된다.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경혈은 360여 개의 14경혈과 아시혈, 경외기혈 등이 있고, 전통수의학에서는 180여개 좌우의 경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경락의 구성

경락은 경맥經脈과 낙맥絡脈, 십이경근十二經筋, 십이피부

十二皮膚經脈과 낙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맥은 정경正經과 기경奇經, 경별經別로, 낙맥은 별락別絡, 손락孫絡, 부락浮絡으로 나뉘어진다.

정경은 12개로, 12경맥이라고 한다. 12경맥의 위치와 순환 방향은 규칙성이 있으며, 장부와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혹 장부에 질환이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관계되는 경락에 침구를 행하여 이를 고칠 수 있다. 12경맥과 각 장부를 연결시켜서 기혈의 순행 경로를 따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2. 12경맥(12정경)의 순환



기경에는 8개의 맥이 있어 기경팔맥奇經八脈(독맥, 임맥, 충맥, 대맥, 음교맥, 양교맥, 음유맥, 양유맥)이라고 하는데, 12경맥을 총괄하고 연결 및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12경별은 12경맥에서 갈라져 나온 경맥으로 사지에서 시작되어, 비교적 깊은 위치에 있는 체간의 장부쪽으로 가는 경로를 가지며, 목 부위의 얇은 곳으로 나오게 된다. 12경별은 12경맥중 표리관계가 되는 2개 경맥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12정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낙맥은 경맥의 분지로 별락, 부락, 손락으로 구분된다. 별락은 비교적 크고 주요한 낙맥을 말하는데, 12경맥과 독맥, 임맥은 하나의 별락을 가지고, 거기에 비의 대락을 합쳐서 15 별락이라고 한다. 별락의 기능은 표리관계인 2개 경맥의 체표에서의 연결을 강화시켜준다.

부락은 체표 얇은 곳에 흐르는 낙맥이다. 손락은 가장 작은 낙맥을 말한다.

경근과 피부라는 개념도 있는데, 12경맥과 근육, 체표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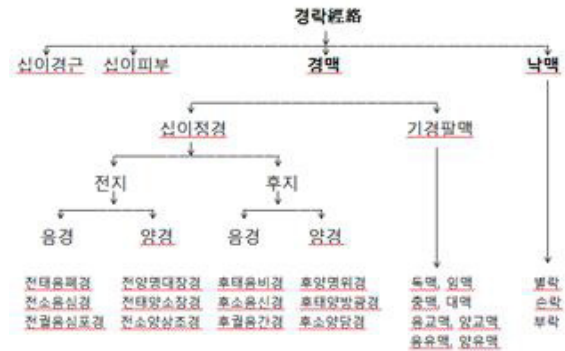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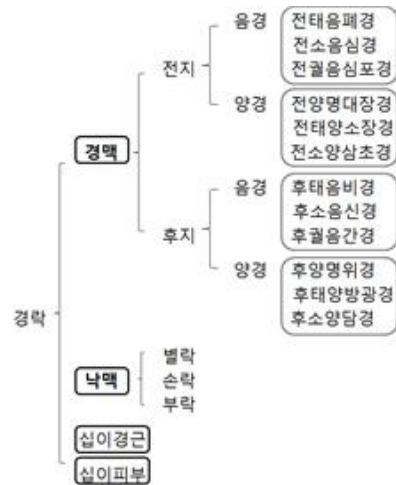


표3. 경락의 구성



### 3. 경락의 작용

3.1 상하내외를 연결한다. 경락은 전신에 두루 퍼져 있는데 규칙적인 순행과 복잡한 연락 체계를 가지고, 오장육부와 조식기관을 연결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만든다.

3.2 기혈을 순환시키고 전신에 영양을 공급한다. 기혈은 생명활동의 물질적인 바탕이고, 경락을 통하여 기능을 발휘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3.3 외부로부터 들어와 질병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방어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의 원인을 외사라고 하는데, 이 외사는 먼저 체표면을 침범하고, 경락을 통해 조직, 기관, 장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피부와 경락은 외사를 방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3.4 반응을 전달하고, 허실을 조절한다. 경락에 존재하는 경혈은 반응 포인트이면서, 자극 포인트이고 치료 포인트이다. 경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살펴 진단을 할 수 있다.

고, 이 경혈을 자극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것이다.

#### 4. 경락에 대한 연구현황

경락본질에 대한 연구는 1934년에 처음으로 논문이 발표된 이래로 지금까지 근 80년이 지났다. 경락연구에 있어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경락의 형태구조, 경락과 신경계통, 신경-체액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많은 작업을 하였고, 많은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순경감전 등의 경락현상이 새롭게 발견되고 보편적으로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경락에 대한 연구는 경락현상(순경감전현상 등)이 중심이 되었고, 경락 본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락본질에 '중추설'과 '말초설'이 대립되어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현대 의학계에는 경혈과 경락은 실체가 없고 오직 신경의 특별한 작용이라는 신경학설이 대세였으며, 침을 맞으면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뇌로 신호가 전달되어 몸에 치료하도록 명령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였다.

경혈경락에 해부학적 실체가 있다는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피부조직의 틈새로 액체가 흘러간다는 틈새공 가설(interstitialspace), 독일의 하이네(Heine)가 주장한 근막(fascia)의 구멍 가설, 액정가설(liquid crystal), 북한의 봉한학설 등이 있으나 아직 확립된 바는 없다.

봉한학설은 지난 61년 김봉한 평양의대 교수가 제창한 이론으로 동물의 몸 전체에는 경혈 경락이 존재하며, 기존의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순환계와 면역세포계의 순환계 외에 제3의 순환계가 있다는 학설이다. 김봉한 교수는 5편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어떻게 실험했다는 방법론이 없고 결과만 제시되어 있었고, 그 외 정치적인 문제로 봉한학설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봉한학설에서 알려졌던 봉한관이 2009년부터 '프리모관(Primo vessel)'으로 용어를 변경해 세계적인 학자들 간에 사용되고 연구되고 있는데, 이 학설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소광섭 교수팀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경락의 현미경적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전자현미경, 나노 입자, 형광 안료 등의 실험을 수행해 왔다. 이후 프리모시스 템에 대한 소광섭 교수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외국의 석학들이 이 이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 이 프리모 시스템에 대

한 과학적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락이란 개념이 쉬운 듯한데, 들여다보면 일단 너무나 많은 경락의 구성 내용과 용어를 접하고는 놀라게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어의 생소함일 뿐이지, 실제적인 개념상의 난립이 아니다.

도로의 예를 들자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등등이 있고,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의한 도로에는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가 있으며, 규모별 구분에 의한 도로에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등이 있다. 도로처럼 경락도 또한 이러한 구분이 있는 것이다. 도로는 소통과 왕래를 위한 것이라면, 경락도 역시 기혈이 소통하고 왕래하는 길인 것이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을 출발하여 대전, 대구 등을 거쳐 부산에 이르듯이, 수태음폐경은 폐, 대장, 간과 연결이 된다.

경락의 순행노선과 장부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은 질병의 진단에서부터 치료법의 선택, 약물의 선택에도 경락체계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침구과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응용되는 현재의 전통수의학에서 필요성은 더 크다고 본다. ♡

#### 참 고 문 헌

1. Kwang-Sup Soh, Bonghan Circulatory Systemsan Extension of Acupuncture Meridians. J Acupunct Meridian Stud 2009;2(2):93-106.
2. 김훈기, 몸속 기여행; 물리학자와 함께 떠나는. 동아일보사
3. 김영곤. 참 건강의 길잡이 보완대체의학. 2010. 대한의학서적